

그 결의 메리, 그 환상의 복식조를 보면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울 수 있는가를 보았다.

그러나 꼭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었다. ‘저기 저 비닐하우스의 비니루와 팽봉지 비니루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 김포도 가본지 오래되었다. 그 땅을 밟아 보고 싶다.

¹ 전설 1 : 중학교 시절 내 친구의 누이가 회사에서 강화도 전등사로 야유회를 갔던 적이 있었다. 전세버스로 다녀온 모양이었는데, 야유회 다음날로 입원을 했다. 병명은 디스크. 차가 비포장 길에 너무 흔들려서 그렇게 되었단다. 나는 그 때 그 소리에 몹시 창피했었다.

² 전설 2 : 김포에서 서울은 100리길이라고 한다. 그 100리가 멀어서 평생 서울구경을 못 해보고 생을 마치신 분이 많았다 한다. 우리 친척 어르신 한 분도 그런 분이셨다는데, 한번은 이분이 식도종양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적이 있었다. 과학적, 심지어 주술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도 가시를 제거하지 못하고 결국 서울의 병원으로 가기로 했단다. 하루에 두 세번 오는 버스를 타고 서울 가는 100리 길을 시작했는데, 차가 하도 덜컹거리서 금방 목의 가시가 빠져버렸단다. 그래서 결국 그 어른은 평생 서울 구경을 못해보고 돌아가셨단다.

³ 내 얼굴이 예쁘고 고왔다는 것을 나도 중학교 때에야 알았다. 중학교 때 내 얼굴에는 버짐이 많이 났었는데, 고민하는 나에게 어머니께서 그 비밀을 들려주셨다. 내가 어릴 때 하도 예쁘고 귀여워서 동네 아줌마, 누나들이 안고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다른 애들보다 곱음마도 늦었다고 한다. 땅을 밟아 볼 시간이 없었던 탓이다. 그런데 그냥 안아주기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예쁘다고 두 볼을 짹짹 빨아대곤 했단다. 그렇게 아기의 연약한 살에 침 범벅을 해 놓아서 훗날 그 부작용으로 내 얼굴에 버짐이 많이 피었던 것이다.

⁴ 메리의 할머니도, 엄마도 다 메리였다. 도대체 우리 외삼촌은 개 이름은 메리 뿐이 없는 줄 아신다. 똥개인데 참 충실한 외삼촌의 비서이다.

⁵ 정말 똑같았다. 아무리 들여다 봐도 앞사귀 하나 차이가 없었다. 뜯어다 전자현미경이라도 찍어 봐야 구별이 될까?

PVC 발명자 Semon 박사 100세로 서거

우리 생활 주변에서 비닐로 잘 알려진 비닐 중합체의 대표적 제품 polyvinyl chloride(PVC)의 발명자 Waldo L. Semon 박사가 지난 5월 26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100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비닐”(vinyl) 즉 PVC 제품은 1926년에 시장에 나온 이래로 건축자재, 전기 절연재, 파이프, 자동차 부품, 비닐 장판, 인조 가죽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연간 440억 파운드의 생산량으로 200억 달러의 막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BF Goodrich 고무회사의 젊은 연구원 Semon 박사는 금속에 접착하는 고분자의 합성에 관하여 연구하던 중 (여가시간에) 방수성, 내화성,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고 유연성이라서 가공이 편리한 가소화 PVC를 발명하게 되었다. “Koroseal”이라는 상품명으로 출시된 이 유용한 플라스틱은 우산, 비옷, 방수막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전쟁 중 부족사태로 곤란을 겪은 천연고무에 대체되는 부타디엔계 합성고무 “Ameripol”을 발명하여 가스 마스크, 타이어 등 연합군의 전쟁물자 제조에 기여하였다.

이차대전 후 Semon 박사는 BF Goodrich사의 고분자 연구소장으로 1963년까지 근무하며 다양한 합성고무의 생산에 공헌하였고, 은퇴 후에는 Kent 주립대학 교수로 봉직하였다.

〈C&EN, p. 37, July 12, 1999/KIST 안광덕〉